

2016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심의 심사평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작년보다 638건 많은 2,011건이 신청되었다.

모든 유형에 고른 신청을 보여 대부분 유형마다 10: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연극, 음악, 전통분야의 경우 420~520여건이 신청되어 선정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의기준은 사업프로그램의 완성도, 프로그램 내용의 순회처 특성 부합도, 기획, 홍보 및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조직운영 역량 등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에 더해 지역적 형평성도 고려하였으나, 신청 공연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수도권이 타 지역 보다 선정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중에 실행력을 우선시하여, 실행력이 미흡한 사업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하지 않았다.

2,011건을 대상으로 한 1차 심사에서는 행정미비나 수혜처에 대한 고려 부족, 사업을 제외하고 장르별로 우수한 단체 395건을 선정하였으며, 2차 심사를 통해 전년도와 비슷한 207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올해에는 선정단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통해 사업추진의 우수성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더욱 우수한 단체들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올 해 선정된 단체들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값진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며, 단체와 수혜자 모두 좋은 성과를 얻기 기대한다.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의위원 일동